중국정사 조선전 元史, 新元史

-원사: 명 태조 홍무제 2~3년(1369~1370년)에 1년여에 걸쳐 편찬, 원대 11세(1260~1368년) 109년 간의 기록. 짧은 기간 서술되었기 때문에 완성도가 떨어짐. 몽고시대, 서방원정, 사한국(四汗國)에 대한 이야기는 누락됨. 서역의 여러 지방과 민족, 남로, 동구, 인도 및 서남아 지방에 서술 역시 부재. 고려, 일본, 안남, 유구 등에 관한 외국열전은 원과의 교섭과 사건을 중심으로 기술됨. 상태서술이 아니라 사건서술. 사료적 가치는 높지 않음.

-고려가 고구려의 후신이며, 고구려의 후예들이 통일신라시대에도 자립하였다가 오대에 와서 신라를 대신하여 건국한 것처럼 서술.

-북중국에서 금과 원의 교체기에 금이 약해진 틈을 타서 거란족의 일파가 대요수국(大遼收國)을 세움. 몽고세력에 쫓겨 압록강을 넘어 1216년 고종 3년 (태조 11년)에 고려 침입. 제천 박달재에서 김취려(金就礪, ?~1234)에게 패하고 강동성에 웅거. 이후 몽고가 병력을 보내 고려군과 함께 이들을 격퇴시킴. 고려와 몽고의 최초의 접촉.

-고려의 趙沖이 몽고의 箚剌에 조공을 제의하자 "너희 나라는 길이 멀어 왕래가 어려우니 매년 사신 열명 정도를 보내어 입공함이 옳을 듯하오."

-처음에는 조공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음. 몽고의 재촉에 조공을 하거나 "여직을 정벌한 사실을 알려주자 비로소 表를 올려 陳賀하였다", "詔勅으로 着古歟 등 열두 명을 고려에 파견하여 고려가 정성을 기울이는지 실상을 살피게 했다"

-1225년 착고여가 고려에 사신으로 왔다가 피살당함. 고려와 몽고의 관계 단절.

-1231년 원 태종 3년(고려 고종 18년)에 몽고의 撒禮塔(살리타)이 고려 침공(몽고의 1차 침입) 達魯花赤(다루가치) 72명을 개경을 비롯한 북계 40여 성에 설치.

-1232년 몽고2차 침입: "瞰이 원조정에서 둔 다루가치 72명을 모두 죽이고 배반하여 마침내 왕경과 여러 주, 현의 백성을 인솔해서 海島로 도망하였다" 용인 처인성 전투에서 김윤후에게 살리타가 살해당함. 총 7차례, 29년 걸쳐 몽고의 침입과 이에 대한 고려의 저항이 이어짐. 몽고는 고종의 입조를 거듭 요구했으나 고려는 이를 거부. 1259년 최씨 무인정권의 종식에 따른 내분으로 강화를 결정하고 세자를 입조시키는 조건으로 몽고와 강화.

-1260년 고종이 죽자 인질로 데려간 세자를 고려로 돌려보냄. 勅書의 내용을 자세히 전제("세자는 빨리 행장을 꾸려 수레를 몰아 귀국하여 정치를 맡게 되거든, 원한과 유감을 풀어 버리고 덕을 펴고 은혜를 베풀도록 하오. .... 되도록 국가를 빨리 바르게 하여 백성의 마음을 안정시키면 나의 군사가 다시는 국경을 넘지 않을 것이오". 고려 원종 즉위. 이후 조공이 점차 정례화되고, 1264년에는 원종이 입조.

-1266년 일본에 사신을 보내는데 고려의 도움을 청함.

-1268년 강화도를 포기하고 개경으로 환도하지 않은 사실을 비난. "태조의 법제에 모든 소속된 국가들은 볼모를 바치고 군사를 돕고, 양식을 수송하고, 역을 설치하고, 호적을 만들고 長官을 두어야 한"다고 이미 일찍이 분명하게 曉諭하였는데도 지금까지 지연시키면서 끝내 약속을 지키지 않았소." 송나라를 치려하는데 "우리를 도울 그대 나라의 사졸과 舟艦은 얼마나 되오? 수송할 군량은 비축이 되어가며 관부를 설치하는 것과 호적의 일에 대한 그대의 뜻은 어떠하오?"

-"너희 임금에게 가서 말하여라. 군사의 실제 숫자를 속히 아뢰면 앞으로 사람을 보내어 감독하겠다. 이번 출동하는 군사에 대해 너희들은 반드시 앞으로 어느 땅으로 출동할 것인지 의심할 것이다. 혹은 남송에 혹은 일본에 쓰고자 하니 너희 임금은 마땅히 배 천척을 받들되, 큰 바다에 4천석을 싣고 건널 수 있게 하라."

-여몽 관계의 질적인 변화: 1269년 林衍이 원종을 폐하고 安慶公 淐을 왕으로 옹립. 원의 위협에 원종 복위. 서경을 포함한 慈悲嶺 이북 지역을 東寧府로 칭하고 원에 편입시킴. 1290년에 고려의 거듭된 요구에 반환. 1270년 개경환도가 발표되자 삼별초의 난 발발. 군대를 보내 김방경이 이끄는 고려군과 함께 진압하게 함. 고려의 내정에 깊숙이 개입.

-일본 원정을 위한(혹은 고려의 정치적 통제를 위한) 屯田 설치, 驛站 설치(역참의 설치는 몽고제국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장치로 간주되었음), 기근에 식량 지원, 고려의 국왕은 수시로 입조.

-1283년 "征東行中書省을 세우고 고려의 국왕과 阿塔海가 함께 정사를 보게 했다."

-충렬왕의 작위 "特進 上柱國 開府儀同三司 征東行中書省左丞相 駙馬 高麗王".

耽羅: "탐라는 고려의 위성국이다. 세조가 고려를 臣服시키고서 탐라가 남송과 일본의 요충지임으로 해서 주목하였다...."

新元史: 커샤오민(柯劭忞, 1848~1933)이 1919년에 편찬